

## 임영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년 맞아 “조직개편·현장 중심 경영으로 도약하는 공기업!”

임영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책임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3년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현장 중심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단의 부채비율은 2023년 85%였으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25년 말 기준 25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 수익 또한 2023년 1억 7천여만 원에서 2025년에는 5억 3천여만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특히 생활환경 업무 분야에서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과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민원은 2023년 대비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일 수

거제가 착실히 정착돼 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조직·인사·평가·현장 운영 전반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다. 2026년 1월 5일자로 기존 2본부 체제에서 3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환경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작성된 수거 노선도에 구간별 예상 수거시간과 안전사고 다발 구역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환경직 근로자들의 숙원이었던 인사·급여·제증명 업무를 현차고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경직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켰다.

둘째,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 풍토 조성이다. 2017년 제정된 이후 시행되지 못했던 「성과평가 시스템」과 「직무 중



심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채용·배치·교육 및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다. 지난해 「안전감사실」을 설치하고 안전·보건 요원을 임용해 예방 중심의 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 정기점검과 현장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건전한 노사 상생 문화 구축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사기 양양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영일 이사장은 “2025년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변화를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환경·문화·체육·교통·복지 등 공단이 맡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에 신뢰로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김준행 기자



###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 개최

12개 읍면 268명 위촉, 담양형 주민자치 모델 강화

담양군이 제5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주민 주도의 지역 운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3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2년간 활동할 주민자치위원들을 공식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제5기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주민자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행사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 ▲제5기 출범 퍼포먼스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인 서정민 강사가 ‘농촌형 주민자치, 마을과 읍면 연계를 통한 농촌재생’을 주제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운영 사례와 실

천 방안을 강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5기 담양군 주민자치회는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2개 읍면 26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27년 12월 말까지다.

한편, 출범식 이후에는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 첫 회의가 열렸으며, 임원 선출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선출된 주민자치연합회 박종봉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한 참여의 공간”이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담양/이종욱 기자

### 강진군,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대표 ‘여성농민 한글학교’ 입학

제18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 신입생 186명 입학식 가져

강진군이 여성농민의 배움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8회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읍 신천마을 외 18개 마을경로당에서 열렸으며, 읍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농민의 배움의 시작과 성취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입학식에서는 한글학교 운영 취지 소개와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가방 증정식으로 배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

한 학생들의 소감 나눔을 통해 교육의 의미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노령의 여성농민 및 다문화이주 여성들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읽고 쓰는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성농민 한글학교는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 여성농민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참여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평생학습 사업”이라며 “앞으로



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09년부터 글을 모르는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를 개교해 연간 1억6천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명의 전담 교사가 한글, 사적연산, 노래교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 함평군 나산면 자율방범대, 제17·18대 대장 이취임식 개최

임원택 신임 대장 취임 “치안은 우리가 지킨다”

전남 함평군 나산면은 “지난 23일 나산면 자율방범대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17·18대 최정선·임원택 대장의 이·취임식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남호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도 의원, 윤영광·박문서·김은영·정현웅 함평군의회 의원, 김명철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종덕 함평군 자율방범연합회장 등 내빈과 방범대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정선 임임 대장은 “임기 동안 나산면 자율방범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

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원택 신임 대장은 “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주민들의 치안 확보와 안전한 나산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미숙 나산면장은 “지역 안전과 치안 정착을 위해 헌신해 주신 최정선 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나산면 자율방범대가 신임 대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 희망을 전하는 장학금 전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지회장 유종욱)는 지난 22일 고흥군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장애인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와 장학생, 복지관 이용자, 후원회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학금 전달과 학

생 격려를 통해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5명(각 30만 원)과 대학생 2명(각 50만 원) 등 총 7명의 학생에게 2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유종욱 지회장은 “앞으로도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제54회

# 강진 청자축제

##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